

새로 나온 책

당신과 나 사이, 77억개의 선

우리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금을 밝지 말라'고 경고한다. 경계를 무시하면 '선을 넘었다'며 화를 낸다.

국가부터 종족, 이념, 성, 지역, 계급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에게는 무수한 정체성이 있으며, 그 정체성만큼 무수한 경계가 그어져 있다. 경계에서 벗어난 갈등들은 신문이나 SNS 등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툼에 대처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 간격을 두고 선을 그은 후 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된다. 코로나 이후 유행하는 '거리 두기'라는 말은 한편으론 새삼스럽다. 구분 짓기와 경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 속 현실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경계, 틈과 틈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끼인 존재들이 있다. 책은 문화인류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아포가 국경, 세대, 인종과 같은 다양한 경계를 가로지르며 기록한 르포르타



슬픈 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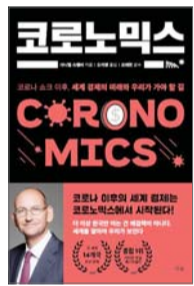
아포 지음/김세복 옮김/추수밭

주다. 저자는 아시아의 국경과 분쟁 지역처럼 경계선이 깊게 그어진 곳에 찾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을 들여다본다.

아포는 강제로 그어진 한국의 휴전선, 세대 간 소통이 어려워지는 조선족 가정, 미국과 일본 사이에 놓이게 된 오키나와, 전쟁을 잊고 싶어하는 베트남, 텐안먼을 기억하는 홍콩 등을 넘나들며 "당신과 나 사이, 77억개의 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돌아보게 한다.

368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코로나믹스



독일의 거시경제학자인 저자는 코로나 위기 이전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 상황을 되짚어보고, 감염병 사태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책은 반세계화,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도래,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 폭발적 부채 증가 문제, 급변하는 노동시장 전망, 기업의 생존 전략 등 코로나19 위기 이후 개인과 기업, 국가가 직면할 변화와 실현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268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혐오와 한국교회



한국 사회는 겉보기엔 평화로운 것 같지만 모든 부면과 층위에서 서로에 대한 증오와 혐오, 조롱과 멸시가 들끓는다. 교회가 대변하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를 표방해왔다. 그러나 혐오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개신교를 성장시킨 동력으로 작용했다. 누군가를 악과 이단으로 낙인찍고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증오의 신학'이 해방 이후부터 한국 개신교 신앙의 바탕에 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한국 개신교 교회가 어떻게 아들에 대한 혐오의 생간기인지와 첨병 역할을 하게 됐는지 낱낱이 까발린다. 312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과기정통부, 시민과 사회문제 해결 추진

'ICT 착한상상 프로젝트'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디지털 사회혁신(DSI)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착수보고회 및 '디지털 사회혁신 멘토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ICT 착한상상'은 정부 주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 혁신 프로젝트다. 일상 생활 및 지역 현안·사회문제 등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자체·사회적기업·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최종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4개 과제는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포용 기술 및 서비스 ▲디지털 활용 사회·경제적 기반 강화 3개 분야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현안·문제를 개선한다.

이번 과제 가운데 '시니어 키오스크 활용 지원 서비스'는 모바일을 활용한 고령층 무인화 단말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박태홍 수습기자 pth7285@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서울사무소에서 '2020년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착수보고회 및 '디지털 사회혁신 멘토단(이하 멘토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멘토단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산림·산불·풍력발전기, 야간에도...

사람 눈 대신 'AI드론'으로 본다

AI 뉴스

과기정통부, AI+드론 융합기술에 2024년까지 480억 배정, 연구돌입

인공지능(AI)과 드론 서비스를 융합한 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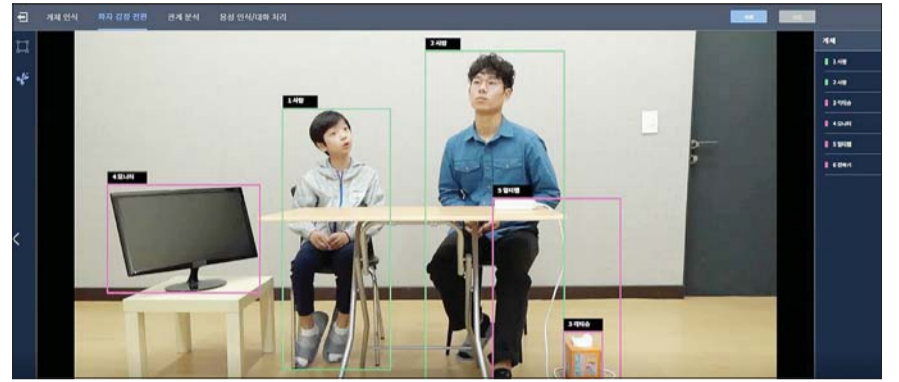
정부와 지자체는 AI와 드론을 접목해 화재·침입자 탐지 등 안전 진단, 시설물 하자 등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서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니어스랩·아크릴·포미트 등 AI 기업들은 AI+드론 융합 기술을 개발해 고객사에 공급하거나 최근 정부 지원으로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AI 드론 설비 점검 시스템 시장 선점 경쟁 후끈, 후발주자도 속속 진입

니어스랩은 지난해 AI 기술 기반으로 드론을 이용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출시해 이미 풍력발전 점검 시장의 60%를 차지했다. 또 이달 지멘스 가메사의 북미 사업부에 AI 풍력발전기 안전점검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미국 등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니어스랩은 AI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자사 드론 제품에 탑재했다. 이를 통해 드론이 스스로 시설물을 인식해 경로를 형성해 이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또 AI 기술이 시설물의 외관 조사에도 활용돼 촬영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진단해준다.

니어스랩은 특히 최근 AI 시설점검 솔루션을 보유한 원프레딕트와 제휴를 맺고 시스템을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시설물 외관을 주로 AI로 분석하는데, 원프레딕트는 드론 촬영 데이터로 AI가 시설물 내



아크릴의 시각이해지능을 적용해 물체인식 및 추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크릴

니어스랩 AI기술 기반 드론 이용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60% 차지

아크릴 시각이해지능 '조나단' 학습모델 설계로 현장 예측·추론

포미트 AI 드론으로 영상 촬영 풍력발전기 이상 조기탐지 시스템

아크릴은 과기정통부의 'DNA+ 드론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해 AI 플랫폼인 '조나단'에 대한 시각이해지능을 선보이고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아크릴이 독자 개발한 시각이해지능은 이미지, 동영상에 확인되는 물체를 인식하거나 물체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로 학습모델 설계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예측 및 추론까지 가능하다.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로 실시간 획득한 이미지와 동영상은 AI 학습 및 추론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고, AI는 사람·물체를 인식해 사람이 어떤 위험행동을 하고 물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준다. 아크릴은 또 다음달 개최되는 '2020 코리아 드론 산업전'에 드론의 카메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물체인식 기술로 멀티모달(목소리+음성, 영상+텍스트 등 다양한 기술 결합)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포미트는 AI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고 풍력발전기 이상을 조기 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제품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드론의 자율주행을 위한 AI 알고리즘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블레이드의 손상 정도를 보고 향후 변화를 예측해주고, 드론이 블레이드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학습시켜 끝까지 갔을 때 제자리



니어스랩이 제공하고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점검 현장 모습. /니어스랩

로 돌아오게 하는 AI 자율주행 모듈도 개발 중이다.

◆정부, 지자체 AI드론 융합 기술 추진 너도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와 드론 융합 기술 개발 사업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2024년까지 총 480억원을 배정하고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관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3개 연구기관과 카이스트 등 3개 대학,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드론 제작사, AI 기업 등 19개 기업 등 총 25개 기관에 참여, 5G를 활용해 실시간 획득한 임무데이터를 AI로 분석하게 된다. 또 비(非)가시권 자율·군집 비행 기술이 적용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림청도 16일 정선에서 '산림무인기(드론) 스테이션(정거장) 개발 및 AI 기반 산림감시체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드론 스테이션은 AI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감시해 산불 발생 등 산림재해를 실시간 탐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자동차도 인식해 무단 입산자도 탐지할 수 있다.

수원시도 AI와 드론을 활용해 산불 감시장비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최근 5년간 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통합 산불상황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AI 기반 CCTV와 산불 감시 드론을 통한 AI 조기 탐지 등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고양시도 16일 드론 첫 비행에 착수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와 AI 기술을 접목해 주변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귀가안심도우미와 드론 촬영과 3D 모델링 기술로 도로·건물 외벽 등 외관으로 확인이 힘든 파손 부위를 진단하는 인프라 진단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20개 과제 확정

과기정통부, 390억 규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2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람의 감성과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분야 ▲자동차, 드론 등 자율주행기술 분야 ▲

음성, 시각, 언어 등 융합 분야 등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활용가치가 높고 데이터 확보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했다.

또 ▲치매, 구강질환 등 질병진단, 운동 등 헬스케어 분야 ▲사람의 얼굴을 악의적으로 변조한 딥페이크 방지 기술 분야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등을 선정했다.

올해는 10개 지정공모, 10개 자유공

모로 작년보다 예산 및 과제가 2배 늘어난 20개 과제를 390억원 규모로 추진했으며, 총 92개 사업자가 참여해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또 지난해 2개 과제를 클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모든 과제에 전면적으로 클라우드 소싱 방식을 적용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